

龍城스님의 중반기의 생애

---대중교화기를 중심으로---

한 보 광

동국대학교 교수

目 次

I. 머리말

II. 大衆敎化期

1. 상경
2. 開敎師長 취임
3. 『歸源正宗』 출판, 梵魚寺 인연
4. 遠嗣喚惺
5. 대각사 창건

III. 獄中 發願期

1.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2. 獄中發願

IV. 맺음말

I. 머리말

지난 논문에서 용성선사의 전반기의 생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반기는 재속기와 산중수행기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세분하여 悟道修行期, 經典閱覽期, 悟後保任期, 再點檢期, 山中禪會기로 나누었다.

그런데 중반기의 생애는 48세인 1911년부터 58세인 1921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 10년 동안을 大衆敎化期和 獄中發願期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는 1911년에 서울에 상경하여 본격적으로 대중교화에 뛰어 들었다. 이 때는 주로 朝鮮臨齋宗中央布敎堂에서 머물면서 포교활동에 전념하게 되었으며, 한용운스님과 뜻이 맞아 대중교화에 앞장을 섰다. 또 『歸源正宗』이나 『불문입교문답』 등의 교화서적도 출간하였다. 그 뒤 한국전통불교의 범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遠嗣喚醒하게 되며, 대각사도 창건하여 독자적인 포교의 노선을 선택한다. 그런데 遠嗣喚醒의 문제와 대각사의 창건년대에 대한 문제를 이번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919년 3월1일에는 민족대표 33인중 불교대표로 참여하여 1년 6개월간의 감옥생활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3.1운동의 참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케 했으며, 이로 인하여 대각교를 창립하고 삼장역회를 조직하는 계기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II. 大衆敎化期

1. 상경

선사의 산중수행과 납자들의 접인은 47세였던 1910년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미 지리산 칠불선원의 宗主로 있으면서 저술한 『歸源正宗』에서 산중을 박차고 나와야겠다는 원력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각종교의 문제점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불교교리의 우세함을 적나라하게 논박한 것으로 볼 때 산중에서 필요한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대중들에게 읽혀야 할 저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술이 산중에서는 크게 효용 가치가 없지만 일반대중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이러한 교리적인 논박서가 한 권도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48세 1911년 辛亥年----경성 상경 大衆布教 시작, 대각사 창건 년대 정정

그가 서울에 상경한 것은 48세인 1911년이다. 이미 국권은 일본에 넘어갔으며, 온 민족은 비통에 잠겨 있을 때였다. 이러한 점은 불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민족적인 감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갔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조국의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뜻있는 사람들은 이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제에 붙어서 갖은 호강호식을 하면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친일파들도 기세가 등등하였다.

그는 막연히 상경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수도 한 가운데에서 대중을 상대로 적극적인 포교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는 이미 『歸源正宗』을 저술하였으므로 각종교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상경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승남 61세 중 전반기의 30여 년이 山中修行期라고 한다면 48세 이후의 30년은 大衆教化期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일생을 30년으로 나누어 뚜렷한 구분을 두고 활동한 분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그의 후반기 30년은 말 그대로 민족과 함께 한 기간이며, 불교의 앞날을 위해 몸부림쳤던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상경하면서 처음에 관심 있게 살펴본 것이 바로 다른 종교였다. 그는 「萬日參禪結社會 創立記」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爾時에 龍城이 河東郡 七佛禪院 宗主로 被任이러니 世尊應化 二九三九年 辛亥에 解任하고 同 二月 晦日에 入京城하야 周流觀覽 則 各教 教堂이 廣大嚴麗하야 聳出中霄하고 每到空日이면 聽衆이 滿堂이러라 自歎久之曰 外道教堂은 鐘聲이 錚錚然如林하되 吾道는 寂寞無人하니 是誰之過耶아 於是乎

라고 하였다.¹⁾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가 상경하여 처음으로 관심 있게 살펴본 곳이 성당과 교회였다. 이는 그가 『歸源正宗』을 저술할 정도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눈에 비친 다른 종교와 불교와의 비교는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이와 같은 술회는 『조선글화엄경』권12에 있는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서도 밝히고 있다.

1) 『龍城禪師語錄』卷下 P24 (龍城全集 1-546)

익년 신해 이월 회일에 경성에 들어와서 시대사조를 관찰한 즉 다른 종교에서는 곳곳마다 교당을 설립하고 종소리가 쟁연하며 교중이 만당함을 보았으나 우리 불교에서는 각황사 하나만이 있을 뿐이고 더욱 우리 선종에서는 한 사람도 선전함이 없음을 한없이 느끼어 탄식하고 즉시 임제선사의 삼스구로 제집함을 본받아 종지를 거량하였을 따름이었다.

라고 하였다.²⁾ 이 글은 위의 것과 비슷한 점이 많으나 당시의 불교계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는 직접 교회에 들어가 보고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다. 당시는 불교계의 도성출입 금지가 해제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었다. 약 300여년 만인 1895년에 비로소 승려의 도성출입이 자유로와 졌으므로 다른 종교의 교세와는 비교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899년에 동대문 밖인 창신동(현 창신 초등학교 위치)에 元興寺가 처음으로 건립되어 전국사찰을 총괄하였으며, 1903년에 궁내부에 있던 관리소를 이곳에 옮겼다고 한다.³⁾ 여기서 1906년에는 현재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明進學校가 출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흥사는 四大門 밖이므로 도성 안에 있는 사찰은 아니었다.

도성 안에는 수송동 88번지에 있던 覺皇寺 하나밖에 없었다. 이는 1910년에 동녘의 궁터였던 것을 상궁 千一淸의 도움으로 왕실로부터 하사 받고 건축비는 전국 7천여 승려의 의무금과 원흥사의 대지 일부를 매각하여 충당하였으며 목재는 해체한 궁궐의 나무를 사용하였다. 건립하게 된 배경은 도성출입을 해제하는데 도움

2)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권12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龍城全集 12-87, 92)

3) 운허스님의 『불교사전』 P659에는 1902년(광무6년)에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석림동문회편 『한국불교현대사』(시공사, 1997) P16에서는 1899년에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을 준 일본불교계에 감사의 표시로 시작하였으며, 李晦光이 주축이 되어 한일불교합병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뒤에는 圓宗 宗務院을 옮기기도 하였다.⁴⁾

그는 당시 각항사 하나로는 도저히 다른 종교에 따라 갈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신도집에서 포교를 시작하였으며, 나중에는 康永勻 집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포교를 하였다.

姜信佛가에 留錫度生하니 時年이 四十八歲러라. 未數三月에 得信徒數百名하다. 又移去康侍郎永勻家하야 與數十信士로 立參禪法規하며 舉唱宗乘하다.

고 한다.⁵⁾ 1911년 2월 이후 그가 처음으로 대중포교를 시작한 곳은 姜氏 불자 집에서였다고 한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은 사찰이 아닌 민가였으며 여기서 몇 개월 동안 계속하여 수 백 명의 신자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의 집에서 많은 사람을 지도하기가 불편하였으므로 康永勻氏 집으로 옮겨서 참선을 중심으로 대중을 지도하였다. 그런데 康永勻家の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가 주로 오랜 주석 하였던 京城府 嘉會洞 211번지가 아닌가 라고 추정해볼 수도 있다. 그의 주석처가 가회동 임을 처음으로 게재한 자료로는 1913년 6월 10일에 간행된 『歸源正宗』이다.⁶⁾ 이 가회동의 포교당은 1922년 大覺寺가 鳳翼洞 2번지로 옮길 때까지도 존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姜昔珠 『佛敎近世百年』 (中央新書, 1980) P46

5) 「萬日參禪結社會創立記」 『龍城禪師語錄』卷下 P25 (龍城全集 1-546)

6) 白龍城 著 『歸源正宗』 (發行所 中央布敎堂, 1913, 6, 10) (龍城全集 8-956)
著者兼 發行者 白龍城(京城府 嘉會洞211番地)

그가 처음으로 상경하여 포교를 시작한 1911년은 대단히 의미가 있었던 해라고 생각된다. 신자집에서부터 시작한 포교의 결실로 민가를 포교당으로 만들어 본격적인 대중포교의 초석을 다졌다는데서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鳳翼洞 1번지 대각사의 건립 년대가 1911년 4월 8일로 보아온 종래의 견해이다.⁷⁾ 지금까지는 『大覺教中央本部 現存物目錄』⁸⁾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여 1911년 4월 8일 건립으로 주장하였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면 연대가 후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종래에 주장한 1911년 4월 8일설은 수정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16년에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2. 開教師長 취임

49세 1912년 壬子年----朝鮮臨濟宗中央布教堂 開教師長 취임

1912년은 용성에게 새로운 포교를 시도한 해이다.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지 한달 만인 10월 6일에 元興寺에 본부를 두고 있던 圓宗 중무원장이었던 李晦光이 일본의 曹洞宗과 연합하기 위해 국내의 불교계와는 상의도 없이 7개항의 조항을 체결하였다. 조약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찬성에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니다가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회광의 조동종 연합을 賣宗

7) 拙著 『龍城禪師研究』(甘露堂, 1981) P111, 186
龍城禪師行績碑(해인사 1993년 건립)

8) 『大覺教中央本部 現存物目錄』 필사본으로 있음. 1931년 4월부터 기록한 자료임.

행위로 선포하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한 것이 臨濟宗 운동이다.⁹⁾ 여기에는 백양사의 朴漢永, 화엄사의 陳進應, 범어사의 吳惺月, 선암사의 金擎雲, 송광사, 통도사 등 호남지역 사찰과 영남지역 사찰이 합세하였다. 이들은 광주 證心寺에서 기획하여 1911년 1월 5일 규탄대회를 거쳐 송광사에 임제종 종무원을 두고 관장으로 김경운스님을 선출하였으나 韓龍雲스님이 관장대리를 맡게 되었다. 뒤에는 범어사로 종무원을 옮기고 서울을 비롯한 광주 대구 등지에 포교소를 두게 되었다.

1912년 5월 26일에는 범어사와 통도사 등이 연합하여 大寺洞에 朝鮮臨濟宗中央布敎堂을 개교하였다. 위치에 대해서는 京城府 中部 寺洞 28統 6戶라고 한다.¹⁰⁾ 개교식에 모인 대중은 수 천명이었으며,¹¹⁾ 한용운은 주무를 담당하면서 취지를 설명하였고, 백용성은 개교사장 즉 포교의 책임자로서 설교를 하였다고 한다.¹²⁾ 이처럼 항일운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임제종운동의 최일선에 백용성이 서 있었던 것은 그의 자주적인 불교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후 그의 노선을 짐작케 해주는 단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¹³⁾

그가 임제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범어사와 통도사가 연합하여 설립한 조선임제종 포교당의 포교 책임을 맡은 것에

9) 姜昔珠 『佛敎近世百年』 (中央新書, 1980) P45

10) 白龍城著 『歸源正宗』卷上 (1913년 6월 10일 간행)에 中央布敎所의 주소가 中部 寺洞 28統 6戶로 되어 있으며, 白龍城著 『佛門入敎問答』 (1913년 10월 27일 간행)의 관권에는 朝鮮禪宗中央布敎堂의 주소가 京城 中部 寺洞 28統 6戶로 되어 있음.

11) 『朝鮮佛敎月報』 5호 <雜報>, <開敎式場>
『매일신보』 1912, 5, 26 <中央布敎堂 開敎式>

12) 『매일신보』 1912, 5, 28 <布敎堂의 盛況>

13) 김광식 「白龍城의 獨立運動」, 『大覺思想』 창간호 (대각사상연구원, 1998) P59

대한 자료는 「萬日參禪結社會 創立記」에도 언급되어 있다.

次壬子春에 通梵兩寺와 智異山 各寺와 聯合하여 新設 禪宗教堂於大寺洞하고 以開教師長으로 被任하다. 布教三年에 信者 三千餘名이라. 自北로 京城에 始有參禪名이라.

고 슬회하고 있다.¹⁴⁾ 그가 여기에 가담하여 한용운과 함께 일하므로 뒷날 3·1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1912년에서 1915년까지의 삼년간의 포교성과는 대단하였던 것 같다. 당시 서울시내의 포교는 미미하였으나 그의 노력으로 3천여명의 신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크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에서 처음으로 參禪이라는 말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臨濟宗 운동으로 시작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에 의해 臨濟宗이라고 하는 宗名을 사용하지 못하고 뒤에는 朝鮮禪宗中央布教堂으로 개명하였다.

3. 『歸源正宗』 출판, 梵魚寺 인연

50세 1913년 癸丑年----『歸源正宗』 간행

그와 인연이 있었던 사찰로는 해인사가 출가 본사이며, 고운사에서 수월장로의 지도를 받고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아 율맥을 전승하였으며, 송광사, 보광사 등지에서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14) 「萬日參禪結社會 創立記」 『龍城禪師語錄』卷下 P25 (龍城全集 1-541) 『조선의 유사종교』 P327
 “1912년 경성 선종 중앙포교원의 포교사로 임명되고----”라고 한다.

출가 본사인 해인사보다는 범어사의 승려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여 범어사의 승려를 자처했는지, 범어사와 어떠한 인연이 있었기에 범어사를 정신적인 안식처로 여겨왔는지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자료가 없다. 그가 범어사와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12년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의 개교사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포교당의 설립은 범어사와 통도사가 주축이 된 임제종운동이며, 항일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범어사와 통도사가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하여 설립된 것 같다. 따라서 이때부터 범어사에 대하여 각별히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나 여겨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의 옥중 4차 취조서에 나타나 있다.

문: 피고는 어떤 절(寺)에 소속되고 있는가?

답: 慶尙南道陝川 海印寺의 승려로 있었고 그 후 범어사(梵魚寺)에서 경영하던 경성포교소에 있다가 五十三세 때부터 鳳翼洞 一 번지에서 단독으로 있었다.

라고 한다.¹⁵⁾ 이는 1919년 7월 28일 서대문 감옥에서 받은 취조서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범어사에서 경영하던 경성포교소라고 하는데 이때 임제종 중앙포교당에서 개교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그러므로 범어사 경성포교당으로도 보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인연은 1913년 3월에 실시된 범어사의 법계고시에 응하여 大禪師의 법계를 품수 받게 되었다. 당시의『朝鮮佛敎月報』의 기사 중「梵魚寺의 法階授與」에 의하면,

15) 李炳憲編著 『三一運動秘史』(時事時報社) P137

慶南釜山府 梵魚寺에서 本年三月에 一般이 法階試驗을 經한바 吳惺月, 白龍城 二師는 大禪師로 昇階하고 其他는 各各地位에 相當한 法階를 得하였다더라.

라고 한다.¹⁶⁾ 이후 그는 줄곧 梵魚寺 沙門임을 자처하고 있다. 1921년 5월 6일에 필사한 『梵網經演義』에도 「金井山 梵魚寺 沙門 白龍城」이라고 하였으며, 1921년 9월 29일에 저술한 『心造萬有論』에서도 「金井沙門 龍城堂 白相奎」로 기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36년에는 일제의 탄압에 의해 대각사의 재산유지가 어려웠 때는 대각사를 「범어사 경성포교당」이라고 하였다.

또 일부에서는 범어사의 주지를 했다는 설도 있는데 1926년 범계생활금지에 대한 1차 건백서를 제출한 후 동아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실고 있다.

취처육식하는 것을 크게 선진하는 승녀들까지도 만케 되였는바 이는 불교교지에 버스러진 일로 조선불교를 망케할 장본이라 하여 수일전에 동래 범어사(梵魚寺) 주지 백용성(白龍城) 함경도 석왕사(釋王寺) 주지 리대진(李大典) 합천 해인사(海印寺) 주지 오회진(吳會眞) 등 일백이십칠명의 련서로 진조선사천의 중생을 위하여 불교의 장래를 위하여 취처(娶妻) 육식(肉食) 등의 생활을 금해야 달라는 뜻의 장문 진정서를 총독부 당국에 제출하였더라.

라고 한다.¹⁷⁾ 그러나 용성스님이 범어사의 주지를 지낸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도 범어사에서는 사증과 연관 있는 스님들

16) 『朝鮮佛教月報』15호 (1913, 4) P65

『조선의 유사종교』P327에서는 1914년 1월이라고 하지만 오류인 것 같다.

17) 『동아일보』 1926, 5, 19 「百餘名 連命으로 犯戒生活禁止 陳情」

의 위패를 모시고 기일에는 다례식을 하는데 용성스님도 그 중한 분이다.¹⁸⁾

6월 8일에는 『歸源正宗』을 간행하였다. 이 저술은 1910년 칠불선원 종주로 있을 때 집필 한 것이다. 『조선글 화엄경』의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서

대각응세 이천구백삼십칠년은 나의 사십칠세 된 때라. 하동군 지리산 칠불선원에서 종주로 있을 때다. 그 해에 하안거 선증은 룡십여원에 달했는데 그 중에 장로 호은 응해 선백이 계시었다. 마침 그해 오월 팔일은 나의 생일날이다. 점심을 먹은 뒤에 법당에 올라가서 종성을 거랑하였다. 그 때 호은 장로가 청하여 말하되 “옛날에 우리교를 배척한 자는 정자와 주자에 지난 자가 없고 현재에 더욱 심하게 배척하는 자는 예수교라 우리가 먼저 남을 배척할 것은 없지만은 한 번 변론할 필요가 있으니 원컨대 선사는 변론하는 서책 하나를 저술하여 종교의 깊고 얕은 것을 알게 하소서” 하니 그 때에 응해 장로께서도 권청하시고 대중도 이구동성으로 청하므로 내가 마지못하여 그해 오월 십일 상오 십시에 칠불조실에서 저작에 착수하여 칠월 십일 하오 삼시에 마치니 그 이름을 귀원정종이라 하였고

라고 한다.¹⁹⁾ 『귀원정종』의 저술은 1910년 음력 5월 10일 오전 10시에 착수하여 7월 10일 오후 3시에 탈고하였다고 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칠불선원 대중들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산중의 선원에서도 유교나 기독교와의 논쟁이 있었던 것 같다.

18) 『梵魚寺誌』 「梵魚寺諸宗師靈祝文」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P436

역대 주지 명단에는 용성스님이 주지를 역임했다는 기록이 없음. P269

19) 백용성 역 『조선글 화엄경』 권12 (龍城全集 12-987)

이때 집필한 원고를 1913년 선종중앙포교당에 있으면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1921년 7월 15일에 재판되기도 하였다. 서문에서

或이 問曰 歸源正宗은 何爲以作也오 曰 宋神宗年間에 江左道學이 倡於 伊川昆季하야 和之者十有餘家라 做出二百十七種見解하야 痛排佛教하며 西教之流가 以排佛로 爲已能하야 毀言이 載路하야 罔有紀極이라 然이나 佛之道는 本絶人我하며 不碍是非故로 成就忍力하야 未嘗與之辨明하니 以故로 世俗이 全昧하야 未識佛道之爲何如하고 但將冊子上語하야 毀之謗之故로 佛日이 日暗하고 法輪이 不轉이라 余不忍坐視其然하야 依排辨論也로 다.

라고 한다.²⁰⁾ 여기서 그는 저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유교, 도교와 기독교가 불교를 배척 비난하므로 이를 논박하기 위하여 저술한다고 하였다. 당시로서는 기독교에 대한 교리적인 논박서가 전무한 시대였으므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독교 교리 논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자료로는 『귀원정중』을 간행할 때 용성은 중앙포교당의 개교사장으로 있으면서 주석은 康永勻가 있던 가회동211번지에 머물렀던 같다. 嘉會洞의 주소가 밝혀진 자료로는 『귀원정중』이 최초이다. 『귀원정중』의 앞부분에 사진과 함께 “開教師長 大禪師 白龍城肖像”이라고 하고 판권에서는 “著者兼 發行者 白龍城”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京城府 嘉會洞 211番地”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中央布教堂의 주소는 “中部 寺洞 28統 6戶”로 밝히고 있다.

20) 白龍城 著 『歸源正宗』卷上 (中央布教堂, 1913) P1 (龍城全集 8-761)

또 8월 12일에는 퇴경이 발행하던 『朝鮮佛敎月報』 13호를 읽다가 暎湖스님이 투고한 「論唯心唯識之說」이라는 글을 보고 잘못됨을 통렬히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봉스님에게 보낸 편지」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²¹⁾ 그는 말 한마디조차도 아꼈으며 불법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어서 10월 27일에는 『佛門入敎問答』을 비매품으로 출판하였는데 이는 한문 한글 혼용본과 순 한글본의 두 가지가 있으나 출판은 같이 묶어서 간행하였다. 8개항의 문답이 중심이며 알기 쉽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²²⁾ 특히 출판 간행을 朝鮮禪宗中央布敎堂으로 하므로 1912년에 주장한 朝鮮臨濟宗中央布敎堂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중 하나이다. 물론 주소는 中部 寺洞 28統 6戶이다.

12월에는 조선선종중앙포교당에서 金剛般若法會를 개설하기도 했다. 그는 이 포교당의 개교사장의 직책을 맡으면서 포교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교화사업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參禪 중심의 교화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결과 3년만에 3천여 신자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51세 1914년 甲寅年----종래의 法脈을 유지한 해

대각사의 건립을 1914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착오인 것 같다.²³⁾ 그런데 이해에 설한 설법 중에 論敎外禪宗이라는 글에

21) 朝鮮禪宗中央布敎堂에서 「용성스님이 경봉스님에게 보낸편지」 (三笑窟消息, 1997) P191

22) 白龍城 著 『佛門入敎問答』 (朝鮮禪宗中央布敎堂, 1913, 10, 27) (龍城全集 8-961)

23) 조선의 유사종교 P327

서 禪宗系譜에 대하여 논한 일이 있다. 『語錄』卷上에서

余는 臨濟下三十七代孫也-라 禪師遷化後 距今一千四十七年也니 禪師在
世時에 天下衲僧이 望風而歸之하야 決擇諸佛正法眼藏하니 從此로 宗風이
大振이라---

라고 한다.²⁴⁾ 여기서의 임제의 37대손이라고 하므로 喚惺志安 이
후의 7대인 錦溪元宇, 靑波慧苑, 百忍泰榮, 翫眞大安, 枕虛處華, 草
愚永瑄, 南湖幸準 등 포함하여 말한다. 이때의 연도를 알 수 있는
단서로는 臨濟 遷化(867) 1047년 이라고 하므로 1914년인 51세로
추정할 수 있다. 적어도 그는 이때까지는 자신의 法脈이 75대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후 그는 이점에 대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
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15년에 喚惺志安 이후의 7대를 부정
하고 바로 환성지안의 법을 遠嗣했다고 함을 선포하게 된다. 이때
까지만 해도 그는 大覺教運動을 전개한 적도 없었으며, 禪宗中央
布教堂에서 開教師長으로 열심히 참선포교에 전념하던 시기였다.

4. 遠嗣喚惺

52세 1915년 乙卯年----喚惺志安에게 遠嗣를 결정한 해

용성에게 있어서 이 해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법맥을 재정립하

「본교는 1922년 현 교주 백상규가 일찍이 (1914년) 자기가 건설한 선종
포교당에서 “대각교”라고 이름 붙여 창설한 것이다.---동년 현재의 땅
에 포교당을 세우고---」라고 하지만 이는 오류인 것 같다.

24) 『龍城禪師語錄』卷上 P16 (龍城全集 1-407)

는 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1914년 논교외선종에서 지금까지의 법맥을 인정하여 왔으나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던 것 같다. 즉 선종의 법맥은 사자상승이 원칙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오도송과 전법계송이 있어야 한다. 즉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학위논문과 심사에 합격하였다고 하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환성지안 이후의 7대는 특별한 오도송이나 전법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견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大悟의 오도송이라고 할 수 없는 문학작품정도의 계송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1914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뜻 있는 선사들과 협의하였던 것 같다.

환성지안 이후의 7대 중 南湖幸準의 경우만 하더라도 용성의 어록이나 글에서 한번도 언급된적이 없는 선사이다. 그리고 정말 정법안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근세불교사에서 그의 이름이 크게 거명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많은 기록에 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대단히 미약하다. 그의 행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부 자료에서 단편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²⁵⁾ 『봉암불조원류』라고 하는 자료에 의하면,

南湖幸準(1852-1928)은 1852년(壬子) 12월 12일 全州 大耳面 龍尾里에서 태어났다.²⁶⁾ 스님의 속성은 度江 金氏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光智, 어머니는 全義 李氏이다. 스님은 14세 때인 高宗 2년(1865, 乙丑)에 출가하여 鎭山 寶石寺의 草愚禪師를 의지하여 삭발하고 龍隱和尚으로부터 5계와 10계

25) 耕雲炯堉 編 『海東佛祖源流』卷我 (서울 佛書普及社, 1978) P248
南湖幸準의 행적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음.

26) 『佛祖源流海東譜派』 「자운소장본」 P51에 의하면 全州 龜東面 龜尾里라고 한다.

를 받았다. 스님의 나이 21세 때인 1872년(壬申) 7월 15일 梵海律師로부터 대소승계를 받았다. 나이 36세 때인 1888년(戊子) 3월 13일에 草愚로부터 傳法을 받았다. 그 후 발심행각하였으며, 활구참선차 제방의 선지식을 參詣했다. 스님은 지리산 百丈寺를 창건했으며, 그 후 가야산 해인사 선원에 주석했다. 그 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스님은 1928년(戊辰) 3월12일에 입적했으며, 세수는 77세, 법납은 63세였다.

라고 한다.²⁷⁾ 그가 해인사에서 주석하면서 용성과 만나 전법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용성스님의 원사설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필자도 용성선사연구에서는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여 선맥을 소개하는 정도로 언급했으나²⁸⁾ 이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므로 자세히 보완코자 한다.

첫 번째 자료로는 『龍城大禪師 舍利塔碑銘』이다.

師 曹溪直下 第三十五代法孫 喚惺志安之後裔

라고 한다.²⁹⁾ 여기서 曹溪直下란 六祖慧能을 뜻하므로 혜능으로부터 35대인 喚惺志安을 의미한다. 물론 혜능을 빼고 다음대인 南岳懷讓으로부터라고 할 수도 있으나 慧能을 포함하여 35대째가 환성지안이 되므로 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환성 이후의 7대는 빠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용성이 환성지안에게 遠嗣하

27) 이 자료는 마성스님이 1992년에 쓴 「龍城震鍾의 行狀再考」--봉암의 불조원류를 중심으로-- 라고 하는 논문 초고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이 어디에 발표되었는지 모르며, 또한 『봉암불조원류』도 직접 본 일이 없다.

28) 拙著 『龍城禪師研究』 (甘露堂, 1981) P16

29) 韓龍雲 撰 『龍城大禪師 舍利塔碑銘』

였다고 하는 충분한 자료이다.

두 번째 자료로는 용성스님의 직계제자인 慈雲스님이 소장하였던 필사본의 『佛祖源流海東譜』이다. 그 서문에 의하면,

現今細考 朝鮮法脈 則 但太古禪師 麗末入支那 受臨濟正脈 清珙和尚 法印
相承以來 李朝佛法歷史 尤甚不明也 又喚惺之後 見性通宗六七代泯矣 傳法
僞文 無憑可考 但工文學產業者之名相爲僧故也 唯是欠哉
臨濟正脈 三十一代孫 釋龍城

이라고 한다.³⁰⁾ 여기서 그는 분명히 환성지안의 법을 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환성 이후의 6, 7대는 견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오도송이나 전법계가 없다는 것이다. 설사 있다고 해도 문학작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正法眼藏을 받은 明眼宗師라고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임제로부터 31대손이라고 하였다. 즉 임제까지 포함하여 용성은 31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같은 자료의 계송부분에서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龍城震鍾 偈曰
佛祖元不會 假說爲傳心
雲門胡餅團 鎮州蘿蔔長
細考禪宗 師師相傳 法脈則傳法僞文 昭然相承 喚惺之後 無憑可考 名實俱虛
污穢禪宗 與諸禪師 會于如居士之軒 討論這般事 意旨相合 體碧溪遠嗣龜
谷之意 以喚惺爲嗣法師 後之兒孫 傳法僞文 代代詳記 相傳可也

라고 한다.³¹⁾ 여기서 자신의 뜻과 遠嗣를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

30) 『佛祖源流海東譜』(자운스님 소장본, 필사본) 서문

31) 上同 P53

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 먼저 偈文을 읊은 후 선종의 법맥은 師資相承이 옳은 일이나 환성 이후의 傳法師들은 대부분 세속에 오염되고 傳法偈文조차 변변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여러 선사들과 如如居士 집에서 토론한 결과 碧溪正心이 龜谷에게 遠嗣하였듯이 환성의 법을 원사하여 대대로 상전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법을 相傳할 때에는 반드시 전법계문으로 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원사의 문제는 한국불교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용성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선사들과 토론을 거친 뒤 원사를 인정 받은 것이다. 또한 南湖幸準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남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특히 汚染禪宗이라는 구절에서 당시 많은 승려들이 취쳐육식하였으므로 南湖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았나 여겨진다. 이어서 다시 계문을 읊으면서,

佛祖未曾傳 我亦無所得
 打破虛空骨 忽地霹靂地
 覺雲淨心 兩師間 不知幾代削去 震鍾喚惺之間 七師削去矣 然但工文學 或專
 產業者 但從權道以 七師承脈耳

라고 한다.³²⁾ 여기서는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覺雲과 淨心(正心の 오기인 듯 함)의 연대 차이는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 대를 뛰어넘어 법을 遠嗣했듯이 龍城과 喚惺의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으나 7대를 削去하고 傳法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7대의 전법은 正法의 상승이 아니고 단순히 문학이나 산업자들이 대를 계승하는 것과 같이 단지 방편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이

32) 上同 P54

라고 한다.

세 번째 자료로는 용성스님의 친필 서간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원사를 상의하고 결의한 것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1914년에 論敎外禪宗이 발표되었으므로 용성의 만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원사설의 년도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공개되므로 龍城研究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즉 「용성스님이 경봉스님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 의하면,

前文省略-----本衲遠師喚惺하이 喚惺則我師라 不必可記也
 世尊 二千九百四十二年 至月 二十三日
 喚惺法嗣 龍城書

라고 한다.³³⁾ 이때가 1915년 11월 23일이므로 적어도 이전에 원사문제가 결정되었다고 보여진다. 만약 이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면 원사설의 연대는 후대로 미루어졌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마성스님의 논문에 인용된 『봉암불조원류』에 의하면 7대를 삼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지만 자료를 직접확인 하지 못하였으며, 자료의 신빙성에도 의문점이 없지 않다.

5. 대각사 창건

53세 1916년 丙辰年---봉익동 1번지에 大覺寺 창건, 北靑 金鑣 經營

33) 明正 編著 『三笑窟消息』 「용성스님이 경봉스님께 보낸 편지」 (極樂禪院, 1997) P172

용성스님의 대각운동의 본거지였던 대각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항에서는 분명히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1911년 4월 8일 설이다. 이설의 발단은 『大覺教中央本部 現物財産目錄』(필사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의하면,

大覺寺 現況

一, 沿革

檀紀四二四四(辛亥) 四月 八日 己未獨立宣言民族代表三十三人의 一人이었던 故白龍城先生이 佛敎布敎를 目的으로 創設하여 爾來四十餘年間 佛敎의 大衆化, 民族精神의 涵養, 著述, 譯經等事業으로 不斷의 努力으로 貢獻하시다가 檀紀四二七三年(庚辰年)二月二十四日 先生이 七十七歲 高齡으로 入寂(別世와 같음)하셨음으로 高足弟子 表壽福氏가 先生의 遺業을 繼承하여 大覺寺住持로 就任 現在에 至하다.

고 한다.³⁴⁾ 이 자료에 의하면 대각사의 건립은 1911년 4월 8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자료를 근거로 大覺寺 설립을 1911년 4월 8일로 보았다. 이 점은 필자가 처음으로 정리하였던 것 같다.³⁵⁾ 그런 후 지금까지 특별한 정정 없이 연보나 연대

34) 『大覺教中央本部 現存物目錄』(필사본)(필자 복사본 소장)

大覺應世二千九百五十八年(1931) 辛未四月

朝鮮佛敎禪宗叢林

재산목록작성은 1931년 4월 大覺教中央本部

1940년

1944년 11월 大本山 梵魚寺 京城布敎堂 大覺禪院

1962년 8월 5일 조사기록이 있으나 본문의 연혁은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 없음. 단 문맥상으로 보아서 1962년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음.

35) 拙著 『龍城禪師研究』(甘露堂, 1981) P186

정리 및 생애를 언급할 때는 이를 定說처럼 생각하고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번 논문을 쓰면서 물리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로는 1911년 2월에 상경한 용성스님이 姜氏 불자집에서 포교를 시작하다가 康永勻 家에서 본격적으로 참선포교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1911년 후반기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康永勻 家가 봉익동 1번지인 대각사가 아니었을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 용성스님의 행적에 나타난 주소는 1912년에 설립한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의 개교사장으로 있었던 中部 寺洞 28統 6戶나³⁶⁾ 혹은 京城府 嘉會洞 211번지³⁷⁾로 되어있다. 따라서 적어도 용성스님이 1913년까지는 봉익동 1번지에 주석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면 왜 재물조사 목록의 대각사 현황에는 이와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을까? 이점에 대해 위의 자료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료의 첫 기록은 1931년 4월에 조사하였고, 다음으로는 1940년과 1944년 및 1962년 8월 15일에 조사한 흔적이 보인다. 즉 대각사에 변동이 있을 때 인수인계를 위해서 조사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대각사의 현황은 문장상으로 보아서 적어도 해방이후 통합종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기록한 것 같다. 왜냐하면 표수복(회암)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1962년의 기록이 아닐까라고 추정한다. 그러므로 자료로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대각사의 설립연대는 언제쯤 되었을까? 이점을 재조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유사종교』에서는 1914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때는 선종중앙포교당

36) 白龍城 著 『佛門入教問答』(朝鮮禪宗中央布教堂, 1913, 10, 27)

37) 白龍城 著 『歸源正宗』(中央布教堂, 1913, 6, 10)

에 근무하면서 주석은 가회동에서 하였던 같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구술한 3.1운동관계로 투옥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조사 받을 때 취조서에 의하면,

문: 성명은?

답: 白相奎이다.(中略, 前例檢事局問答과 同一하므로)

문: 피고는 어떤 절(寺)에 소속되고 있는가?

답: 경상남도 협천 해인사의 승려로 있었고 그 후 범어사(梵魚寺)에서 경영하던 경성포교소에 있다가 53세 때부터 鳳翼洞 1번지에서 단독으로 있었다.

라고 한다.³⁸⁾ 이 자료는 1919년 7월 28일 서대문 감옥에서 예심판사가 조서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검사가 일방적으로 하던 조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대각사는 그의 나이 53세 때인 1916년에 봉익동 1번지에 설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료 중에는 본인이 직접 언급한 것이므로 가장 신뢰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대각사의 건립은 종래의 1911년 4월 8일이 아니라 정확한 일시는 알 수 없지만, 1916년에 봉익동 1번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용성스님은 중앙포교당의 개교사장도 맡고 가회동에서 참선포교도 하였으며, 봉익동 1번지에 대각사도 설립하였다.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은 다름 아니라 포교에 사용되는 재정이었던 같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에 빠진다. 「萬日參禪結社會創立記」에 의하면,

一日에 自謂호대 譬如水源이 完實하야사 滔滔長江이 波濤萬里하나니

38) 李炳憲 編著 『三一運動秘史』 (時事時報社) P137

吾宗도 亦然하야 禪宗 本寺는 淸淨山間에 建造하야 道人을 養成하고 禪宗 布敎堂은 各都市中에 設置하야 天下大衆 으로 共益을 得케 할지로다. 如是思惟나 難得者資本이러라. 前北靑郡守康洪道謂余曰 先生이 勞心焦思者 事業發展이니 我北靑郡守時에 金銀銅鑛에 前韓國鑛으로 爲定이러니 而今 廢止矣러라. 先生이 若於有意면 事業非難이라 하야늘 余喜不自勝하야 着手數三年에 損失이 亦多러라.

라고 한다.³⁹⁾ 여기서 그가 얼마나 포교자금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포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청의 금광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자금난으로 고심하고 있을 때 마침 북청군수를 지낸바 있는 강홍도라는 사람의 권유로 금광사업에 착수하여 삼년만에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러한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업자적인 경험이 부족하고 수완이 없었던 그에게 성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지 모를 일이다.

북청은 함경남도 북청군으로 산악지대와 동해안이 연결된 지역이다. 이곳은 헤이그밀 사로 파견되었던 이준열사의 고향이기도 하며, 북청사자놀이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 때 북쪽 과 인연이 되어 훗날 함북에 포교당을 건립하여 念佛房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간도에 대각 교당을 세우기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북청금광사업에 대한 분명한 연대가 없으므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1916년에서 1918년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로는 다른 연대는 명확하며, 중반기의 생애 중에서 이때의 행적이 자세하지 않으므로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54세인 1917년과 55세인 1918년의 행적이 묘연하다. 아마도 이시기는 북청금광사업에 전력을 다 한 것으로 보인다.

55세인 1918년에는 한용운스님이 간행하던 『唯心』誌 2호에 「破

39) 「萬日參禪結社會創立記」 『龍城語錄』卷下 (龍城全集 1-546) P25

笑論」이라는 원고를 투고하였을 뿐 다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비록 사업에는 실패하였지만, 사원경제의 자립화라는 큰 과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값진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다.

Ⅲ. 獄中 發願期

1.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56세 1919년 己未年----3.1운동 참여 獄中期

선사가 3.1운동에 참여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싹터왔던 민족혼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발아 한 것이다. 그는 1911년 서울로 상경하여 신도집에서 포교를 시작하였으나 1912년부터는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의 개교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특히 여기서는 만해 한용운이 사무를 책임지고 용성은 포교의 책임자로 소임을 꾸려갔다. 만해와는 15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것이다. 그는 적어도 1912년부터 1916년까지인 약 4년간은 선종중앙포교당의 일을 착실히 보아왔던 것이다. 포교에 전력하면서 金剛般若法會를 개설하여 조직적인 교화작업을 전개하였으며, 『佛門入教問答』集이나 『歸源正宗』 등을 간행하여 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선전하였다. 그러나 선종교당이 일제의 종교정책 밖에서 활동하였으므로 항상 간섭이 심하였다. 그러다 보니 용성이나 만해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용성은 독립하여 1916년경에는 대각사를 창설하였으며, 포교사업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청의 금광사업에도 착수하였다. 그러기를 약 3년 동안 전력을 다하였지만 결국 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 1918년 4월 이후는 대각사에서 주석하였다. 아마도 북청 광산업을 하면서도 주석은 대각사에서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3.1일 운동 1차 취조서에 의하면,

10년 전까지 전기는 해인사에 있었고 10년이래 경성에 돌아와서 작년 4월까지 불교를 전도하고 있다가 4월 이후는 무직이다.

고 한다.⁴⁰⁾ 이 내용은 바로 1918년까지는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는 대각사에서 머물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그의 활동시기 중에서 1916년에서 1918년까지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북청 금광사업에 전력하였기 때문에 다른 활동자료가 남겨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용성과 만해는 임제종운동을 통하여 서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며, 선종중앙포교당의 소임을 함께 맡아 살았으므로 의기가 투합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만해는 3.1운동거사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동참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함에 용성을 선뜻 천거하였을 것이다. 인품의 됴됨이나 투철한 애국정신과 과묵하여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 비밀을 철저히 지킬 사람이 필요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람으로는 용성이 적격자임을 알고 천도교의 실무자였던 최린에게 1919년 2월 20일에 불교대표로 추천하였다. 그후 만해는 마땅한 인물을 고르기 위해 2월 20일 범어사로 내려갔으나 추가교섭에 실패하고 귀경하였다⁴¹⁾.

40) 『3.1運動秘史』 P137

만해는 2월 27일경에 용성이 주석하던 대각사로 직접 찾아가서 3·1운동의 목적과 추진상황등을 설명하고 동참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용성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3월1일 당일의 1차 경찰의 취조문에서,

大正八年 二月 二十七日 오후 八시경 京城府 桂洞 韓龍雲이란 사람이 나에게 와서 구주전쟁의 결과 파리강화회의에서 각국은 독립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 조선도 독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금명일내로 선언하려고 하니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므로 그런 일이면 마땅히 찬성한다고 하였다.

라고 한다.⁴²⁾ 사전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으나 2월 27일에 연락하여 도장을 받았던 것 같다. 이러한 것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에 철저를 기하였던 것 같다. 만약 비밀이 탄로 나면 독립운동은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확실히 믿는 사이가 아니면 동지로서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용성은 만해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런 일이라면 마땅히 찬성한다고 흔쾌히 동참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인 제4차 조서에 의하면,

본 년 二月 二十七日 韓龍雲이가 와서 지금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기회에 조선도 독립될 것이니 참가하라고 하여 나는 그 방식을 묻고 참가하기로 하였는데 동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천도교, 야소교가 합동하여 운동하는데 인장이 필요하니 인장을 달라고 하여 인장을 주었고 그후 二月 二十八日 韓龍雲이가 와서 가입되었으니 내일 오후 二시에 명월관 지

41) 김광식 저 『용성』 (민족사, 1999) P110

42) 『3.1運動秘史』 P137

점으로 오라고 하므로 나는 생활이 곤란하여 양미를 구하러 인천에 갔다가 오후 2시에 명월관에 가니 벌써 동지들이 대부분 다 모였고 한용운의 인사말이 있을 후 만세삼창을 부르자 곧 경관이 와서 체포되었다.

고 한다.⁴³⁾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월 27일에 한용운이 연락을 하면서 입장을 받아 갔고, 28일에 확실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 주었다고 한다. 특히 기독교와 천도교가 참여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용성은 한용운에게 생명과도 같이 사용될 도장을 내주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히 보이고 있다. 용성은 단순히 한용운의 말만 듣고 참여한 것이 아니라 파리강화회의가 열리는 등 세계적인 정세와 이러한 영향으로 민족의 독립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또한 독립운동의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고 한다. 그런 후 자신도 참가할 것을 결심하여 요구하는 입장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린의 취조서에 의하면 2월 20일에 한용운이 백용성을 민족대표로 가입시켜달라고 하였다고 한다.⁴⁴⁾ 그러나 용성의 취조서에서는 2월 27일에 한용운의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이점에 대하여 김광식은 한용운이 2월 20일 백용성을 가입시켰지만 27일에 가서 본인에게 정식으로 제의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한다.⁴⁵⁾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조금이라도 비밀이 누설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뒤에 상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제자였던 이동헌스님의 증언에

43) 上同

44) 上同 P594

45) 김광식 「白龍城의 獨立運動」, 『大覺思想』 創刊號 (대각사상연구원, 1998) P64

의하면, 2월 26일 밤에는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한용운의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못 만나고 돌아왔다고 한다.⁴⁶⁾ 그러므로 이미 서로 이야기는 오고 갔으며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확실히 도장을 건네준 것은 2월 27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일인 3월 1일에는 인천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다녀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위장전술인 것 같다. 당일은 대단히 긴장하였을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였을 때 본인에게 돌아올 결과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제의 탄압과 고문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인천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는 것은 그들이 눈치를 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므로 오후 2시를 맞추어 명월관에 도착하였으며, 독립선언문 낭독에 참여하고 민족대표 33인중 불교대표로 4번째 서명한 것이다. 사실 서명은 27일 한용운이 도장을 받아 가서 하였을 것이며, 이때 한용운은 용성을 불교대표로 4번째에 서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성이 서대문 감옥에 국사범으로 감금되어 4차의 조서에 임하게 되었다. 『三一運動秘史』에 나타난 취조서에 의하면,

- 제1차는 3월 1일 당일 警務總監部 警部 竹村産淸에게 취조를 받았으며,
 이는 3월 14일 警務總監部 檢事 河村靜永에게 넘겨졌다.
 제2차는 3월 18일 西大門 監獄에서 檢事 河村靜永의 조서이다.
 제3차는 5월 6일 京城地方法院 豫審掛에서 豫審判事 永島雄藏의 조서이다.
 제4차는 7월 28일 西大門 監獄에서 豫審判事 永島雄藏의 조서이다.
 제5차는 8월 27일 高等法院 豫審判事 楠藏의 조서이다.⁴⁷⁾

46) 拙著 『龍城禪師研究』 (감로당, 1981) P88

47) 『3.1運動秘史』에서는 여기에 대한 날자는 없으나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권12 (3.1운동, 2) P91 (白相奎 신문조서)에서는 일자가 있음. 김광식 「白龍城의 獨立運動」 『大覺思想』 創刊號, (대각사상연구원, 1998) P65

이상은 조서와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취조서이다.⁴⁸⁾ 그는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오면 계속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태화관에 모이기로 한 33인중 29인 모였으며 나머지 4인은 불참하였다.

재판 결과 처음에는 지방법원 예심에서 심리한 결과 사건 내용이 內亂罪에 해당한다고 하여 고등법원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내란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여 사건이 지방법원으로 다시 반송되었다.⁴⁹⁾

그에게 내려진 죄목과 최종형의 결정은 新法에 의하면, 大正8年 制令 第7号 第1條 第1項에 해당하고, 舊法에 의하면 朝鮮刑事令 第42條로서 保安法 第7條에 해당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⁵⁰⁾

이러한 옥중생활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을 것이다. 갖은 고문과 회유와 협박이 있었지만 기록으로 남은 자료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난이 있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떳떳하게 취조에 응했으며, 변절하지 않았다. 옥중에서 취조 중에 당한 고난에 대한 자료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8) 上同

49) 上同 P57

50) 上同 P841

拙著 『龍城禪師研究』(甘露堂, 1981) P88

2. 獄中發願

이로서 그의 옥중 생활은 시작되었다. 그는 옥중에서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옥중에서 결심한 것을 출옥과 더불어 하나한 착실하게 실천하였다. 『조선글 화엄경』의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 의하면,

대각응세 이천 구백 삼십육년 삼월 일일에 독립선언서 발표의 대표 일인으로 경성 서대문 감옥에서 삼년간 철창 생활의 신선한 맛을 체험하게 되었다. 각 종교 신자로서 동일한 국사범으로 들어온 자의 수효는 모를 만치 많았다. 각각 자기들이 신앙하는 종교서적을 청구하여 공부하며 기도하더라. 그때에 내가 열람하여 보니 모두 조선글로 번역된 것이요 한문으로 그져있는 서적은 별로 없더라. 그것을 보고 즉시 통탄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크고 큰 원력을 세운 것이다. ---중략---내가 만일 출옥하면 즉시 동지를 모아서 경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하여 이것으로 진리연구의 한 나침반을 지으리라 이렇게 결정하고 세월을 지내다가 신유년 삼월에 출옥하여 모모인과 협의하였으나 한 사람도 찬동하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비방하는 자가 많았다.

고 한다.⁵¹⁾ 여기서 그가 옥중에서 어떠한 결심을 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는 다른 종교의 서적이 모두 한글로 된 것을 보고 출옥하면 반드시 불경의 번역사업을 할 것을 발원하였다. 그러나 출옥하여 이 뜻을 상의하였으나 협조하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방해만 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출옥하자마자 바로 4월에 三藏譯會를 만들어 번역과 저술에 전력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옥중 결심은 다른 곳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

51) 백상규 『조선글 화엄경』권12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龍城全集 12-987)

는 “삼년간 철창생활의 신선한 맛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에게 3.1독립운동으로 인한 옥중생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은 불교 경전의 한글화 작업인 역경의 중요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의 새로운 포교를 위한 조직화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기성의 교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왜색화 되어가고 전통성을 상실한 교단으로서는 변화가 불가능함을 깨달은 것 같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大覺敎運動이다. 그는 조선시대에 천시받고 억압받던 불교의 변화를 모색하여 새로운 이미지의 불교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불교의 근본사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뿌리는 전통불교에 두면서 새로운 불교운동의 전개를 모색한 것이 大覺敎運動이다. 大覺이란 바로 부처님을 뜻하므로 佛卽大覺이라고 하여 불교를 대각교라고 하였다.

그가 출옥한 후 바로 착수한 것이 역경사업을 위한 三藏譯會를 개설하였다면, 다음으로 한 것이 바로 대각교회 설립과 大覺敎運動이다. 심지어는 僧籍까지 버리면서 이운동에 적극성을 보였다. 이 대각교운동은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가 감옥에서 불교의 장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고 했더라면 그의 후반기의 생애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여러 종교의 포교방법론을 배우는 한편 불교의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후반기에 보여준 사원경제의 자립이나 전통불교의 수호, 포교의 현대화, 역경과 저술 등의 일들은 옥중에서 보고 듣고 느

긴 것을 체계화하여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파격적으로 불교의식을 한글화하고 불교음악을 작사한 것은 옥중에서 다른 종교에서 받은 자극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에게 옥중의 생활은 단순한 복역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행기간이었으며, 새로운 종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 그는 1921년 3월에 출옥하면서 후반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용성선사의 중반기의 생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처음 계획으로는 용성선사의 생애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중반기 부분에서 많은 분량의 논문이 준비되어 중반기를 넣고 후반기는 다음 기회에 발표하려고 한다. 중반기 부분에서 분량이 많아지게 된 배경에는 평소에 대각사의 창건년대에 대한 이설이 분분하던 차 이번에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1911년 4월 8일이 아니라 1916년으로 정정하게 되었으며, 그 참고자료를 충분히 게재하다가 보니 분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 한편 용성스님이 범어사와 인연을 맺게 되어 본인 스스로 “金井沙門龍城”이라고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일은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이 범어사가 중심이 되어 건립되었으며, 이

곳의 개교사장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1913년에 범어사에서 大禪師法階를 받은 뒤 더욱 관계가 깊어졌다. 하나는 용성선사의 遠嗣喚惺문제 이다. 이 점도 그 동안 이론이 많았으나 본 논문에 분명히 정리하게 되었다. 선사는 1914년까지는 臨濟脈으로 환성 이후의 7대를 인정하였으나 다음 해인 1915년에는 분명히 7대를 소급하여 환성에게 遠嗣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원사의 이유에 대해서는 자운스님이 소지하였던 『海東佛祖源流譜』에 자세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으나 「용성스님이 경봉스님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론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3.1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옥중에서 모진 고문과 취조를 당하긴 하였지만 그는 이를 잘 참고 견디면서 변절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의 취조서에는 대단히 당당함을 느낄 수 있으며, 언제라도 독립운동을 다시 하겠다고 하였다. 그의 옥중생활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는 “옥중에서 신선한 맛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옥중기간을 단순히 수형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불교를 위한 發願期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발원은 출옥과 더불어 실천되었으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